

조선시대의 농업교육과 한말의 신농학 교육

# 고종때 「수원농리」 석리, 신농법 보급

조선시대 농민의 농업기술교육은 고을 수령(守令)의 지휘를 받는 권농관(勸農官)이나 양잠관(養蠶官)의 현지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148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면(面)마다 오늘날의 면장격인 권농관을 두되, 이의 선임은 고을 수령이 고을 내의 품관(品官) 중에서 부지런하고 건실한 자를 골라 임명토록 되어있다. 곧 현직에 있지 않은 퇴직관료나 전직(前職)은 없어도 품계(品階)가 있는 양반 신분의 지도력 있는 인물을 뜻한다. 또 양잠관은 공공의 잠실(蠶室)이 있는 양잠 주산지에 한하여 관직을 가진 자 중 부지런하고 건실한 자를 가려 겸임토록 되어있어 그 수가 권농관보다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오늘날 농촌지도소의 지도공무원과 같이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것이다.

## 조선시대엔 권농관이 현지교육

조선조의 인사제도는 일선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사품(四品) 이상의 대부(大夫)의 품계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령의 직무는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여 일곱가지 업무가 있으나, 그 첫째가 농상성(農桑盛)으로 요약되는 권농업무였다. 이 권농업무는 수령의 직무 중 태반이 넘는다. 수령은 해당 고을의 권농실적에 따라 5회의 연말 고과(考課)중 3회 이상 상(上)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품계(品階)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을 수령들은 재직기간 중 싫든 좋든 좋은 고과와 승진을 위해서도 스스로 배우며 익힌 농업기술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때 편찬된 「농가집성(農家集成)」이나 「산림경제(山林經濟)」 등 수많은 농서(農書 농업교재)가 대부분 수령을 거친

양반 사대부들이 편찬한 것은 이 조선조의 인사제도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의 전문적 농업기술 교육은 주로 관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관청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여 쓰는 도제식(徒弟式) 교육이었다. 예컨대, 군마(軍馬) 양성을 담당한 사복시(司僕寺)에서는 오늘날의 수의사격인 마의(馬醫)를 양성하여 시험(과거)을 거쳐 말단 수령과 동급인 종육품(從六品)직에 보임하였고, 오늘날의 동·식물원과 유사한 장원서(掌苑署)에서는 자체 기관에서 양성한 인재의 능력에 따라 화훼담당은 종육품(從六品)의 신화(愼花), 과수담당은 종칠품의 신과(愼果), 진기한 새 종류나 짐승담당은 팔품의 신수(愼獸)직에 각각 임명되었다.

또 오늘날의 축산기술직은 감목관(監牧官) 밑에 군두(群頭)와 군부(群副)가 있었다. 조선조에서는 국방상 필요에 따른 군마양성과 주기적인 유행성 괴질로 소의 전멸에 대비해 섬이나 반도(半島) 등지에 국영목장을 설치하였다. 1663년(헌종 4년)의 경우 전국 1백38개소의 목장마다 종육품(從六品)직의 감목관을 배치하였고 그 밑에는 마소 50두마다 1인의 군부(群副), 1백두마다 1인의 군두(群頭)를 배치하였는데 군부, 군두는 그 밑의 보조인력인 목자(牧子)들이 도제식 전문교육을 받아 승진한 직책이다.

이와 같이 농업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재는 국가가 직접 편찬하여 인쇄·배포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는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이나 1636년의 「마경언해(馬經諺解)」 등이 그 예이다.

개화기의 신농학은 17세기 R.Hook의 현미경 발명, 18세기 말 Lavoisier에 의한 근대화학 그리고

**조선시대의 농업교육은 고을 수령의 지휘를 받는  
권농관(勸農官)이나 양잠관(養蠶官)에 의해 관청에서 이뤄졌으며  
17세기 개화기때부터 신농학교육이 시작되어 고종때 3년제의 수원농림학교가 설립되었고  
각 도마다 1~2년제의 농업학교가 설치되었다.**

1865년 G.J.mendel의 잡종연구 등이 농학에 응용된 내용으로 그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1883년 함경남도 덕원(德源)의 원산학사(元山學舍)가 그 시초였다. 1876년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해 부산항을 개항하였고 이어서 1880년 4월 원산항을 개항하였다. 이 개항으로 개항장은 일제(日帝) 상인의 침투에 맞선 우리 상인들의 대결장이기도 하였다.

**최초의 서구식 농학서는 「農政新編」**

이 때 그 곳 읍민들이 절실히 느낀 것은 일제들이 알고있는 신지식을 우리도 알아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덕원 읍민들은 1883년 1월 개화파인 덕원부사(府使) 정현석(鄭顯奭)에게 5천2백15량(兩)의 기금을 모아 주면서 자제들에게 신식 교육을 시켜줄 것을 청원하였다. 덕원부사는 자신과 그 곳 출신 승지 정헌시(鄭憲時) 그리고 원산 세관에 고용중인 외국인들의 출연금을 합쳐 모두 6천7백65량의 기금을 재원으로 개량서당(書堂)적인 신식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그 교과목 중 농업과 양잠교재는 신사 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온 안종수(安宗洙)가 1881년에 편찬한 「농정신편(農政新編)」이었다. 이 「농정신편」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농학서였다.

1885년 미국 선교사 H.G.Appengell이 서울에 세운 배재학당의 농업교재는 알 길이 없으나 1886년에 정부가 세워 8년 동안 존속하였던, 육영공원(育英公院)의 교과목에는 농리(農理)와 화훼(花卉)가 들어있었다. 교재는 알 수 없으나 교수진이 프린스턴대학 출신의 G.W.Gilmore 등 미국인 3명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아마도 이들이 서구의 신농

학을 교육시킨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1901년에는 농상공부가 서울 필동에 최초로 2년제의 신식 잠업학교를 설치하여 매년 50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으나 1904년 관제개혁으로 이 학교는 잠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1899년 고종의 실업교육에 관한 칙서가 내려지면서 4년제의 상공(商工)학교가 설치되었고, 1904년에는 농과가 증설되어 농상공(農商工)학교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인 서구식 전문농업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수는 일본 구마모도 농학교를 졸업한 이장로(李章魯)씨와 일본인 야가베(赤壁次郎)씨 등이었다.

1906년에는 고종의 칙령 39호로 농상공학교의 농학과를 독립시켜 농림학교로 개편하고, 1907년에 수원으로 옮겨 12.5ha의 넓은 부지에 3년제의 수원농림학교가 설립되었다. 초대와 2대 교장은 농상공부 농무국장이었던 서병숙(徐丙肅)씨와 정진홍(鄭鎭弘)씨가 겸직하였으나, 교수진은 1906년에 설치된 수원농사시험장의 일본인 기사(技師)들이 겸직하였다. 이 수원농림학교가 바로 서울대 농대의 전신이다.

1909년에는 실업학교령을 공포하여 각 도마다 1~2년제의 농업학교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912년에는 모두 15개 학교가 되었다. 이 무렵 공업학교는 하나 뿐인 경성공업학교, 상업학교는 선린상업을 비롯 인천, 부산 등 세 곳 뿐이었다. 따라서, 개화기 실업(과학)교육은 농업교육이 선도적이며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그 무렵 농업이 천하의大本(農者天下之大本)이었기 때문이다. ①7

金榮鎭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